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⑬

眞心妙用 隨感隨現 如谷應聲
진심묘용 수감수현 여곡응성
法耀云今 法耀云今
법동운금 法動云今
고승무추 분명재목적 편운생만곡
孤鶴下遙天 所以魏府元華嚴云
고학하요천 소이위부원화엄운
佛法在日用處 在行住坐臥處 喫茶
불법재일용처 재행주좌와처 깃다
喫飯處 語言相問處 所作所作
喫飯處 語言相問處 所作所作
각반처 어언상문처 소작소취
攀心動念 又却不是也
거심동념 우각불시아
故知識則一切處 悉能起用
고지체즉범일체처 실능기용
(但)因緣有無不定故
단인연유무부정고
妙用不定非無妙用也
묘용부정기 비무묘용야
修心之人 欲入無爲海 度諸生死
수심자인 욕입무위해 도제생사
莫迷眞心體用所在也
막미진심체용소재야

연왕석제조 시경성인 개유생유사
今現見世間修道之人 有生有死事
금현견세간수도지인 유생유사사
如 何云出生死耶
여 하운출생사야

물었다. "일찌기 들으니 경성한 사
사람은 생사를 초월한다 했습니다. 옛날
의 모든 조사(祖師)들은 다 경성한 사
람이지만 모두 생사가 있었고, 현재에
도 세상의 수도하는 사람은 생사가 있
는데, 어떻게 생사를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까?"

曰生死本無 妄計爲有 如人病眼
왕생사본무 망계위유 여인병안
見空中花 無病人 說無空花 病者不信
見空中花 無病人 說無空花 病者不信
견공중화 무병인 설무공화 병자불신
目病若無 空花自滅 方信花無
목병약무 공화자멸 방신헌무
只花未滅 其花亦空 但病者
지화미멸 기화역공 단병자
妄執爲花 非體實有也
망집위화 비체실유야
망집위화 비체실유야

진심의 묘용은 감응에 따라 나타나
는 것이니 마치 산골짜기의 메아리와

대답했다.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
나 분별력으로 있게 된 것이다. 어떤

눈병난 사람이 '허공의 꽃' 잘못보듯
생사는 본래 없는데 있는줄 안다

같은 것이다. 법동스님이 "지금이나 옛
날이나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눈 앞에
있나니. 조각 구름이 저녁 골짜기에서
나오고 외로운 학이 먼 하늘에 내린
다" 하였다. 그런 때문에 위부의 원화
엄 법사는 "불법은 날마다 생활하는
곳에 있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워 있는 곳,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
는 곳, 말하고 서로 묻는 곳, 모든 행
위 가운데에 있으니, 마음을 내어 생각
을 풀리게 되면 도리어 옳지 못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진심의
본체는 모든 곳에 두루하여 모든 일에
작용을 일으키지만 단지 인연의 있고
없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묘한
작용이 일정하지 않을 뿐이지 묘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이
무위의 바다에 들어가서 생사를 건너
고자고 하거든 진심의 본체와 작용의
소재에 대해 어둡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눈병으로 허공의 꽃(눈병 때문
에 허공에 마치 꽃이 있는 것처럼 잘
못 보는 일에 비유)을 볼 때, 눈병이
없는 사람이 허공에 꽃이 없다고 말해
도 병자는 믿지 않다가 눈병이 다 나
아서 허공의 꽃이 절로 없어져서야 비
로소 꽃이 없다는 걸 믿게 된다. 그러
나 그 꽃이 사라지기 전부터 그 꽃은
원래 없는 것이지만 단지 병자가 망령
되어 집착하여 꽃이라 여긴 것일뿐 그
본체가 참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如人 妄認生死爲有 或無生死人
여인 망인생사위유 혹무생사인
告云本無生死 彼人不信 一朝妄息
고운본무생사 피인불신 일초망식
고운본무생사 피인불신 일초망식
生死自除 方知生死 本來是無
생사자제 방지생사 본래시무

마치 어떤 사람이 망령되어 생사가
있다고 할 때, 생사가 없다고 믿는 사
람이 말하기를 "본래 생사는 없는 것
이다." 하고 알려주지만 그 사람은 믿
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망심(妄心)이
쉬어서 생사가 절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10. 진심은 생사를 초월한다(眞心出
死)

或曰 嘗聞見性之人 出離生死
혹왈 상문견성지인 출리생사
然往昔諸祖 是見性人 皆有生有死

일우스님 (마곡사 토굴암 주지)

출가. 그런 거창한 말은 어울리지 않습
니다. 불가에 인연이 있었기에 여든 네 살
인 지금 마곡사 토굴암에서 살고 있는 것
이죠. 꼭 줄을 서지면, 수덕사에서 계를
받았으니 지금 수덕사 어느 암자에 있어
야 할 몸이지만 이곳 마곡사에 있는 것도
인연을 거슬리지 않고 따랐기 때문입
니다.

절에서 밤을 처음 보내게 17살이었습
니다. 고향 연암산에는 지장암이 있었는
데, 만행 중이던 운수남자 한 분이 잠깐
머무신 것입니다. 그 만행승을 통해 여귀
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그 스님을 지장암까지 모시
고 갔습니다. 그게 출가한 계기입니다.

그 후로 지장암을 비롯해 몇몇 암자에
서 백일기도 정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속
가 근처에 갈일이 있어, 암자 몇 군데를
찾아가 보았는데 천장암을 제외하고 모
두 터만 남아있더군요. 천장암은 대단한
암자입니다. 임제종의 선맥을 이었던 경
허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이고, 내가 은사
를 만나 머리를 깎을 수 있었던 암자였
으니까요.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
허·만공스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정혜사
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이 22살, 은사
이신 벽초스님을 만났습니다.

벽초스님을 처음 친견했을 때 기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깎고 싶다는
제 말에 스님은 대답 "니 나무 아홉집 하
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 말뜻이 끝
나기가 무섭게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던 '나무꾼 처사'
가 되려고 정혜사에 간 것이 아니었습
니다. 벽초스님은 단지 내 마음을 떠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수행에는 나
무 아홉집을 지고 산행을 하는 것 만큼
이나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벽초
스님은 '첫마디'에도 수행자가 평생 놓
지 말아야 할 자세를 가르치셨던 참스승
이십니다.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을 모신 불단이
있습니다. 나는 은사스님과 함께 두 스님
을 영원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여년 동안 남북(南北)의 선방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불법은 절을 옮겨해도 없
어지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불법이기에
때문이다"는 만공스님의 가르침과 "내 마
음이 깨끗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다"는
벽초스님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만공스님의 영정을 자세히 보세요. 예
사롭지 않죠. 이 영정을 친견했던 대부분

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상화라고 설명하
면 다들 놀래요. 이 초상화는 원래 서울
망월사에서 모셨던 것인데, 내가 그 절
주지 춘성스님에게 평생 받들겠다는 다
짐을 하고서 이곳으로 모셔온겁니다. 나
중에 알았지만 서울의 유명한 화가가 그
렸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
도 만공스님 영정 만큼은 결코 잊지 않
을 겁니다.

만공스님을 처음 뵈는 것은 오대산 상원
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선 수련대회가 있
었죠. 이날 만공스님은 '무상'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였고, (열반경)에 이
르기를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하셨습니다. 여쭙는
몸이 행업(行業)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 1916년 3월 충남 서산에서 출생
1932년 수덕사 벽초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37년 범어사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40~53년 마하연, 잠안사,
영은암, 표훈사, 유점사,
보현사 북한 선방에서 수행
1960~69년 상원사, 통도사,
화엄사, 통학사, 해인사,
수덕사 등 선방에서 정진
현재 마곡사 토굴암에 주석.



"가득차 있으면 소중함 모르다가
조금 모자라는듯 하면 그때야
고마움 깨닫게 되는 법이죠"

와같은 자세를 버리고 잘못됨을 반성하
지 않는다면 자신을 그르칠 뿐이다."

이날 만공스님은 젊은 스님들의 부족
한 수행력을 크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애
석하게도 이 법문을 제외하곤 만공스님
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의 가르침은
내 수행의 근본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마곡사 토굴암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는 노승에 불과하지만, 그저 평생동안
만공스님이 살이간 모습을 흉내내었다는
것으로도 만족할 따름입니다.

금강산 마하연을 비롯 잠안사, 영은암,
표훈사, 유점사, 보현사 선방과 오대산
상원사를 비롯 통도사, 화엄사, 통학사,
해인사 선방을 전전했던 것도 경허스님
과 만공스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선지식을 찾아서 무조건 걸어들어갔기 때
문입니다.

두 스님은 본래부터 선승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길을 되짚고 싶었다고
말하는 노승의 생각 한편에는 사실 송구
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
를 제대로 하질 못한 까닭입니다.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 여름을 보낼
때 일입니다. 금강산은 높고 깊어서 여름
에도 별로 덥지 않습니다. 한낮 3~5시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금강산은 운동 바위
로 뒤덮인 산이 아닙니까. 이 시각에 유
독 더웠던 것은 태양의 열기에 바위가
달궀고, 뜨거운 기운이 바위 정심(頂
心)에 모였다가 일순 뿜어나오는 시각이
기 때문이지요. 이를 가르쳐 한 스님이
"절수에서 돈수로 변하는군"이라고 말씀
합니다. 마하연에서는 자연의 조그마한
변화도 마음공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반도 시자도 없는 이곳 토굴암 생활
은 어떻게 보면 적막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을 밝게 해주는 도량
입니다.

"적적하고 고요하게 혼자 앉아 있으니
오직 마음만 본래의 마음 자리로 돌아
가 의지하네."

며칠 전 점심공양을 하려고 단지를 열

Advertisement for Hwangto Hyeombeokdong Machine, featuring a photo of the machin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productivity.

Advertisement for Buddha's Life and Teaching (불교성서), including a photo of the book cover and details about the author and publisher.

Advertisement for Hwangto Jip (토굴), featuring a photo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text about its location and services.